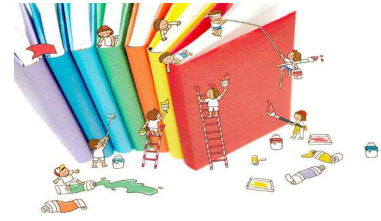


♣ 15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 1면 - 4면 4학년 2학기 사회 교과관련도서목록
- 5면 - 서평 : 엄마에게(서진선/보림)
- 6면 - 서평 : 샤휌(정지원/문학과지성사)
- 7면 - 한국고전 : 심청전
- 8면 - 외국고전 : 베니스의 상인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2학기 사회 관련도서 : 전집 -

책정보 (전집)		관련 단원	
	도량도량 사회 탐구동화 /한국차일드아카데미	6. 농촌에 간 도시 쥐 7. 넓고 넓은 바닷가에서 8. 산골 아이 찬이의 하루 9. 서울 구경은 즐거워! 10. 우리 땅 우리 특산물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교원	16. 상징물과 특산물을 뽐내 볼까?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생활 속 사회탐구 플러스 /그레이트북스	10. 인구씨, 문제가 뭐예요? 38. 로봇을 살거야 39. 연필이 만들어지기까지 42. 농사도 산업, 지식도 산업	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생각이 반짝이는 지식별 /교원	7. 세계의 문화가 달라 10. 타고자가 세계여행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꼬마 다글리 다문화 글러벌 리더 /아람	전권(100권)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교과서 속 경제 사회 /와니북스	13. 손님도 왕이에요 55. 집에서도 간단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2학기 사회 관련도서 : 단행본 -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p>(주제학습 초등사회 02: 생산 ) 영차영차 생산과 산업, 나누어서 척척 분업 (전혜은/북멘토/2008)</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빗자루 파는 뽀족 모자 마녀 : 올바른 소비 생활로 이끄는 경제 이야기 (실비 지라르데 지음 /김루시아 옮김/초록개구리/2015)</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뚝 소리나는 경제 (양팡때 글/울타리 지음 /최지경 그림/씽크하우스)</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실비 지라르데 지음 /김루시아 옮김/초록개구리/2008)</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새 자전거가 불량품이에요 (양혜원 글/전미화 그림/한솔교육/2013)</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미래직업, 어디까지 아니?(박영숙 글/어스더 그림/고래가숨쉬는도서관/2015)</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시골벽적 시장 한 바퀴 (강효미 지음/우연이 그림/아르볼/2013)</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미진로 이야기 전 권(30권) (대교 소박스/2014)</p>	<p>1단원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p>
	<p>엄마는 응오꾸엔 대왕의 딸 (신동일 글/윤문영 그림/가문비어린이/2008)</p>	<p>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p>
	<p>다문화 백과사전 (채인선 지음/한권의책/2012)</p>	<p>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p>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2학기 사회 관련도서 : 단행본 -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새터민 이야기: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경아 글/신나경 그림/거인/2013)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내 생각은 누가 해주? (임사라 글/양정아 그림/비룡소/2006)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손에 잡히는 사회교과서 8.가족 (박현희 외 글 /김명길 그림/길벗스쿨/2008)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어린이를 위한)양성평등 이야기 (이해진 지음/파라주니어/2012)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복지논쟁 (류재숙 글/박종호 그림/폴빛/2012)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세계의 인구 (카트린 롤레/현실문화/2010)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박윤경 지음/신지윤 그림/북멘토/2008)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신현영 글/황수민 그림/한솔수북/2009)	2단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이어령의 교과서 넘나들기 1. 디지털편 디지털 시대와 우리의 미래 (이어령;이동은 글/나연경 그림 /살림/2010)	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4학년 2학기 사회 관련도서 : 단행본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p>아하, 그래서 유명하구나!! : 주제학습 초등사회 06 (박정애 글/신성희 그림/북멘토/2006)</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외우지 않아도 쓱쓱 들어도는) 초등지리 생생교과서 (지호진 글/이창섭 그림/스콜라/2006)</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룰루랄라 사회과부도:우리나라 인문지리 (박애라 글/ 이영우, 홍종현 그림 /청년사/2006)</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사회는 쉽다! 7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홍경의 글/원혜진 그림/비룡소/2014)</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쿠루사 글/모니카 도페르트 그림 /최성희 옮김/동쪽나라/2003)</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늘보가족, 검은 바다로 가다! : 아이앤북 창작동화18 ( 양승현 글/박영미 그림/아이앤북/2008)</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자원봉사 :봉사하며 꿈을 찾은 하늘이의 나눔이야기 ( 김하늘 글/ 박영찬 그림/ 토토북/2011)</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초등학교 자원봉사:나누고 즐겁고 행복하고! (김현의 글/김호민 그림/초록우체통/2012)</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p>미래 속으로 슈웅! : 교과서 으뜸 사회탐구 32.43 (임정은 글/황요섭 그림/ 헤르만헤세/ 2014)</p>	<p>3단원 지역사회의 발전</p>



서진선

부산에서 태어났고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그림 공부를 한 뒤 서울로 올라와 잡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에 그림을 그려 오면서 늘 마음 한편에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가슴 깊이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만든 첫 번째 그림책 [오늘은 5월 18일]이 있습니다.

- 북DB



### 고향의 봄을 기다립니다.

(엄마에게/ 서진선 쓰고 그림/ 보림 /2014 )

서울송곡초등학교 유승희

현대를 사는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으로 새겨진 6·25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을 그린 이야기이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을 초점으로 한 다른 책과 달리 박사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북에 남겨진 엄마와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그렸다.

둘째 아이 가용은 의사인 아빠를 따라 환자들과 버스로 먼저 평양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 엄마는 동생들과 걸어서 피난을 가고 있었는데 아빠와 가용이 있는 버스를 함께 타고 싶었지만 버스가 서면 다른 사람들도 버스에 타려 해서 세울 수가 없었다. 가용은 부산에서 엄마와 가족을 기다렸지만 휴전이 되었다. 두세 달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의 노래 테이프를 들어야만 하는 아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 곧 우리나라 곳곳에 살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이야기이다. 이제는 그때의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어 돌아 가셨고 그때의 아이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들으니 더 슬프고 아련하게 느껴진다.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더 공감이 가고, 시종일관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50~70년대의 부산의 모습을 수목화처럼 씩씩 힘차게 그린 그림이 소박하면서 정감이 간다. 작가 서진선은 전 작 '오늘은 5월 18일' 에서도 5.18의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담아 한 가족이 겪었던 아픈 이야기로 우리에게 5.18을 그림책으로 전해 주었다. 역사적 상황 안에 희생되는 개인에 관심을 갖고, 이를 쉽고 울림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기억해야 할 일. 둘째 아들 가용과 같은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며 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숫자로 통일을 저울질하는 우리에게 먼고 낯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이다. 그 이유만으로도 통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직접 겪지 않아 역사의 시대적 슬픔을 공유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1. 6.25전쟁 배경 조사하기
2. 분단의 현실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읽기

<b>함께 읽으면 좋은 책</b>
선생님, 바보 의사 선생님/이상희 글/김명길 그림/웅진주니어/2006
온양이/선안나 글/김세중 그림/샘터/2010





정지원

어깨너머로 철학을 배웠다. 열입곱 개의 화분과 누군가 저버린 고양이, 그리고 나이 든 어머니와 함께 낡은 집에 산다. 가난하지만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며, 늘 초조해 하면서도 알람을 켜지는 않고 지낸다. 어떠한 단체나 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창작활동 중이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종일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간의 행운을 2년간이나 누리고 있다. 『바바, 천하최강』으로 제6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샤워』로 제 10회 마해송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책날개 작가소개 발췌-



### 파도의 눈물로 샤워하다.

(샤워/ 정지원 글/ 노인경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4 )

서울청계초등학교 박영혜

“아늑은 문득 사람들이 왜 샤워를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몸을 두드리는 물방울들은 그동안 돌이 저질러 온 실수와 잘못까지도 남김없이 씻어 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남긴 눈물들은 쉬지 않고 돌의 등껍질을 아프게 두들겼습니다.”

보통의 동화책들은 제목을 통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샤워』는 전혀 내용을 짐작할 수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샤워는 욕실에서 몸을 씻는 행위이다. 여기서의 샤워는 아니다. 내면의 잘못과 실수를 씻어내는 샤워다.

이 책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눈을 뜨고, 사람들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시각에 잠드는” 바퀴벌레의 이야기이다. 아늑과 부드 이야기. 두 바퀴벌레는 모두 같혀 산다. 아늑은 외모만 보는 친구들 사이에 같혀 살고 부드는 샤워기에 같혀 산다. 둘은 우연히 만나 서로의 친구가 된다. 서로의 내면을 위로하는 정신적 친구가 된다. 아늑은 다른 바퀴벌레보다 덩치가 크고 못생겨 짝도 찾지 못한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따돌림의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욕실에서 노래를 부른다. 부드는 넘치는 호기심 때문에 샤워기 안에 같혀 하루하루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고 있다. 어느 날 부드가 인간의 위험으로부터 아늑을 구해주고 둘은 친구가 된다. 아늑은 부드에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야기상대로 되어 주고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바퀴벌레 이야기라는 설정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첫 장부터 바퀴벌레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바퀴벌레의 걸음걸이까지 어쩌나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또한 아늑의 노래가 중간 중간 들어 있어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다. -본래 작가는 뮤지컬을 위해 이 동화를 썼다고 한다. -

제10회 마해송문학상 수상작인 『샤워』는 동화가 아니다. 철학서다. 작가가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아늑의 노래, 부드의 말이 어른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다. 아늑과 부드의 우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지하고 철학적인 책이다.



1.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읽기
2.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까만 아기 양/엘리자베스 쇼 글/푸른그림책/2013

생각이 크는 인문학. 2:아름다움/한기호 글/을파소/2013



**한국고전  
- 심청전**

《심청전》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해지는 ‘효녀 지은’ 이  
나, 고대 중국의 설화에 후세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해 지어낸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청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전라남도 곡성군 관음사 창건  
설화를 바탕으로 곡성군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웅진군 백령도나 부안군 부  
근 앞바다라는 주장도 있다. 《심청전》은 판소리계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  
가지로 ‘심청가’ (판소리 창본)와 ‘심청전’ (판소리계 소설)으로 나뉜다.  
‘심청전’은 다시 완판본(전주 지방 간행)과, 경판본(서울 지방 간행) 등  
여러 판소리계 소설과 서편제·동편제·강산제 등 각기 다른 유파에 속한  
판소리 창본들로 80여가지의 이본이 있다.[출판사 창비, 휴이념 해설 참고]

출판사별	출판사별 책의 특징
 <p>장철문 글 윤정주 그림 창비</p>	<p>되도록 원본의 맛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고전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창비 재미있다 우리고전 시리즈이다. 많은 심청전의 이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골라 대조,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심청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은 꼭씨 부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맹인잔치에서 전국 각지 봉사들이 눈을 뜨는 장면등이 새롭다.</p>
 <p>서정오 글 백대승 그림 현암사</p>	<p>큰 줄거리는 판소리사설[심청가]를 기동 본으로 삼고 군데군데 여러 곳 노래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취해 이야기의 맛을 살렸다. 깔끔한 이야기체로 전개되며 어려운 옛말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알맞게 다듬었으나 본 모습에 큰 변화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그런 말에는 간단하게 풀이해 놓아 어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p>
 <p>이미아 글 조예정 그림 휴이념</p>	<p>옛말을 풀어 놓아 초등학교생이 읽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꼭씨부인의 장례 절차를 축약하고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만나는 꿈 속 귀신들이 누구인지 밝혀 놓은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창비 시리즈에는 없는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과 청이가 장승 부인에게 지어 준 시에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장면이 극적 효과를 더한다. 책의 중간에 삽입된 ‘쉬어가기’는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쉽게 풀어쓰려다 보니 말의 재미가 다소 떨어지고 책의 주제에 대한 작가의 설명이 자칫 생각하는 힘을 방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p>
 <p>이상희 글 박지영 그림 두산동아</p>	<p>전공자가 쉽게 풀어 썼다더니 어린이가 읽기에 편하게 각색하였다. 그러나 중간중간 판소리의 가사를 실어 창소리의 완판본을 각색하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어머니를 만난 부분이 실려 마음을 찡하게 하였다. 글씨체와 글자 크기나 그림이 어린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p>
 <p>김예선 글 정승희 그림 한겨레아이들</p>	<p>한겨레 옛이야기 27번째 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도 읽기 편하도록 쉬운 말로 풀어 놓았다. 한겨레 옛이야기 시리즈가 거의 그러하듯이 어느 판본을 기준으로 각색하였는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듯 구수한 입말체로 서술되어 있어 편안한 느낌이 든다.</p>
 <p>정지아 글 김주리 그림 주니어김영사</p>	<p>주니어김영사 한국 고전 문학 읽기 시리즈의 한 권이다. 원본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참고 문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쓰여 있으며 구체적인 묘사로 재미를 살렸다. 책의 부록으로 심청전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 해설이 있어 심청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니어김영사 심청전의 작품 해설이나 작가의 의도가 없는 것이 아쉽다.</p>

**작가 소개**

작가 미상

**심청전 줄거리**

황주 도화동에 사는 봉사 심חק규와 꼭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심청의 이야기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심청은 아버지의 젖동냥으로 자라 어머니를 대신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다. 어느 날 정승 부인댁에 갔다 늦게 돌아오는 심청을 기다리던 심봉사는 딸을 찾아 나서다 물에 빠지고 이를 몽운사 화주승이 구해준다.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올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하자 심봉사는 그리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를 알게 된 심청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남경으로 가는 뱃사람들의 제물이 되기로 하고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보낸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그 효성으로 용궁에서 지내다 연꽃을 타고 세상에 나오게 되고 임금의 눈에 띄어 왕비가 된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커지자 이를 임금에게 이야기 하고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찾고자 한다. 잔치 마지막 날 극적으로 재회한 모녀, 심봉사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된다.



**외국고전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으로, 1605년에 초연된 후 지금까지 수없이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주인공 안토니오 외에도 유대인 샤일록, 지혜로운 여성 포셔 등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희비극이다. 목숨과 사랑이 걸려 있는 계약과 예상치 못한 해결 과정에서 셰익스피어 특유의 극적인 요소와 기지를 엿볼 수 있다. 원래 희극으로 된 것을 찰스 램, 메리 램 남매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산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많이 읽히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출판사별 80일간의 세계 일주

출판사별 책의 특징

	<p>강명희 엮음 지경사</p>	<p>극작품으로 구성된 원작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읽기 쉬운 말로 풀어내고 소설 형식으로 구성했다. 원래 작품과 비교해 란슬롯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축소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줄이는 정도의 편집을 거쳤지만 대체로 원작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편집으로 극작품이 소설적 요소를 갖추게 되어 극적 운율이 사라지고, 삽화가 상상력을 저해하며, 자간과 행간의 편집이 답답하여 읽기를 방해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p>
	<p>에디스 네즈빗 문학동네</p>	<p>베니스의 상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 별로 없다. 이 책은 한 권에 10편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어린이들이 어려운 셰익스피어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p>
	<p>글공작소 엮음 아름다운사람들</p>	<p>베니스 상인을 비롯하여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을 &lt;공부가 되는 셰익스피어 5대 희극&gt;이라는 제목으로 한권에 담았다. 중간 중간에 명화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내용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p>
	<p>메리 램 엮음 두산 칼라이 그림 예림당</p>	<p>셰익스피어의 희극 중 20작품을 골라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고쳐 쓴 찰스 램과 메리 램의 &lt;셰익스피어 이야기&gt;를 원전으로 번역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lt;셰익스피어 이야기&gt;를 원전으로 삼아 즐거움을 이해하기 쉽다. 책 속 삽화는 등장인물의 복장이나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려 이야기와 잘 어울린다.</p>
	<p>현소 엮음 아이세움</p>	<p>아이세움의 논술명작 시리즈로 ‘살 1파운드? 피 한 방울!’이라는 부제를 붙여 흥미를 유도한다. 만화로 미리 보기 등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전체적인 줄거리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편의 이야기도 캐릭터 등을 등장시켜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원전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에는 여러 논제를 제시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작가소개**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영국의 대문호로 그와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그의 생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 그의 사망일인 4월23일로 정하게 된 까닭도 사람들의 그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극작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희극 38편, 소네트 154편, 그리고 장시 2편 등이 있다.

**베니스의 상인  
줄거리**

1596년경의 작품. 1600년에 초판. 이탈리아의 옛날 이야기에서 취재한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포샤에게 구혼하기 위한 여비를 꺾달라는 부탁에 가지고 있는 배를 담보로 하여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리고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 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 준다. 바사니오는 포샤의 테스트를 통과해 구혼에 성공한다. 반면 안토니오는 배가 돌아오지 않아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남장을 한 포샤가 베니스 법정의 재판관이 되어, 살은 주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샤일록은 패소한다. (두산백과)

**북토크톡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12월에 발간됩니다.